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3호 (2015년 9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태내 환경을 반영하는 발달 지표와 HPA 축의 기능장애와 관련 있는 행동과의 관계 심경옥 · 전우영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제 3판 사회-정서 척도의 타당도 연구 박인환 · 석혜은 · 김아영 · 신석호 · 방희정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이승연 · 송경희 · 안소현

한국 유아의 격조사를 활용한 타동사 문장 이해 발달 진경선 · 김민주 · 송현주

불안 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정혜윤 · 진영선 · 장문선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이미영 · 장은진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 박혜경 · 이옥경

갈등적응효과로 살펴본 인지적 통제의 연령차 박현진 · 김초복 · 박영신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인영감:
아동 · 청소년 · 성인집단의 비교 박하얀 · 정윤경 · 최해연

운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강인선 · 이현진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정영숙 · 정영주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쇄일 : 2015년 9월 15일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발행일 : 2015년 9월 15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제작처 : 책과공간

전 화 : 051-510-2135

(02-725-9371)

편집위원장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심사위원 : 강민주(연세대학교) 강연욱(한림대학교) 광금주(서울대학교) 권미경(U.C Davis)
김명식(전주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정미(한솔교육문화연구원) 김혜리(충북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김홍근(대구대학교) 김희화(부산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박해원(울산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심희옥(군산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유연욱(계명대학교)
유연재(아주대학교) 윤재호(가톨릭대학교) 윤혜경(서연아동발달연구소) 이경님(동아대학교)
이승복(충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승진(서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유경(한솔교육문화연구원) 장은영(성균관대학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정계숙(부산대학교)
정명숙(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정영숙(부산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경자(호서대학교)
조숙자(이화여자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진영선(경북대학교)
채수은(한국교육개발원) 천성문(경성대학교) 최나야(가톨릭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최해연(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Editor :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 Mi-Kyoung Kwan(U.C Davis)

Geun-Young Kim(Seo Gang University)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9

태내 환경을 반영하는 발달 지표와 HPA 축의 기능장애와 관련 있는 행동과의 관계	심경옥 · 전우영 / 1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제 3판 사회-정서 척도의 타당도 연구	박인환 · 석혜은 · 김아영 · 신석호 · 방희정 / 29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갈등, 거부불안민감성, 소속에 대한 욕구와 또래괴롭힘 동조행동과의 구조적 관계	이승연 · 송경희 · 안소현 / 51
한국 유아의 격조사를 활용한 타동사 문장 이해 발달	진경선 · 김민주 · 송현주 / 75
불안 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정혜운 · 진영선 · 장문선 / 91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이미영 · 장은진 / 115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 박혜경 · 이옥경 / 141
갈등적응효과로 살펴본 인지적 통제의 연령차	박현진 · 김초복 · 박영신 / 171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 · 청소년 · 성인집단의 비교	박하얀 · 정윤경 · 최해연 / 189
운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강인선 · 이현진 / 209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정영숙 · 정영주 / 227

한국발달심리학회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 혜 원[†] 박 혜 경 이 옥 경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3-5세 유아와 어머니 68쌍을 대상으로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어머니가 보고한 설문지, 유아 행동실험과 유아 행동관찰을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집중, 억제통제와 주의전환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는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과잉억제와,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과장표현과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지지반응인 문제·정서초점과 표현격려 반응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 비지지반응인 고통감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 및 억제통제,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문제·정서초점이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는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과잉억제를 부적으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과장표현을 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실험으로 측정한 유아의 통제노력(뽀로로가 말하기)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과장표현을 부적으로, 실험으로 측정한 유아의 통제노력(만족지연시간)은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통제노력, 정서관련 양육행동, 정서조절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이혜원,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tree509@hanmail.net

유아의 정서발달과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말 이후 구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윤경, 2008;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최근에 와서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정서발달과 함께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유아기에 형성된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김은희, 2014; 박진아, 2007;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et al., 2001). 지금까지 정서조절은 정서를 다루는 전략(strategy)(Morris & Reilly, 1987),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시키는 내적 과정(McCoy & Masters, 1990),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시키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Westen, 1994)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어린 유아에게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유아는 자기 스스로의 내적 조절과 타인에 의한 외적 조절을 통해 점차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유경, 민경환, 2003). 3-7개월의 어린 유아는 초보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조직화된 다양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미소(social smile)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유아 자신의 흥분도 조절하게 한다(Brazelton, Koslowsky, & Main, 1974). 생후 9개월 이후 유아는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e)를 통해 행동조절을 시작한다. 이 참조적 조절행동은 걸음마기에 이르르면 더욱 활발해 진다. 생후 12개월의 유아는 스스로 몸을 흔들거나 험오스러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며, 양육자에게 안길뿐 아니라 그를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다(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Sorce, Emde, Campos와 Klinner(1985) 등은 12개월 된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려 할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참조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2세경이 되면 유아는 인지 지각능력과 어휘력이 함께 늘어나면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단어를 많이 알게 된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또한 당황스러움, 수치감, 죄책감, 자괴심 등의 복잡한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Lewis, 1993). 3세경에 유아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인지적 성장과 주의통제의 증가를 통해 새로운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맥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혼잣말”로 대처하고 긍정적 용어로 말하는 등 전 시기와는 매우 다른 율동한 정서조절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다(Wolchik & Sandler, 1997). 3-5세의 유아는 슬픔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체적, 물질적, 언어적, 사회적, 간접적 전략(strategy) 등을 사용하며 주로 친사회적 전략이나 공격적인 전략을 쓴다(Fabes & Eisenberg, 1992; Fabes, Eisenberg, Nyman, & Michealieu, 1991). 일반적으로 유아는 슬픔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적·물질적 전략, 분노조절을 위해 물질적·언어적 전략, 고통감을 줄이기 위해 언어적·신체적 전략 등을 사용한다.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슬픔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친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

용한다(Denham, 1998). 유아기에 학습된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유아기는 정서조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Fabes, Hanish, Martin, & Eisenberg, 2002).

유아의 기질(temperament)은 유전적 특질로서, 보통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개인적 특징인 반응성, 각성수준, 반응의 잠재성, 사회성, 접근회피 경향 등을 의미한다(Saarni, 1984). Rothbart와 Hwang(2005)은 기질은 정서, 행동, 주의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반응성(reactivity)과 자기조절(self regulation)에 있어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유아의 기질 중 특히 통제노력(effortful control)은 정서를 조절하는 자율적 능력으로서 정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지배적 반응을 억제하고 하위반응 들을 활성화 시키는 실행적 주의(executive attention)라고 할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통제노력은 주의를 의지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주의집중, 인지적 전환과 분산)이나 의지적으로 억제하거나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억제적이고 활동적 통제: 환경적응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과 관계 깊다. 이 통제노력은 행동조절 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과 정서표현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또한 통제노력은 정서 활성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여 내적인 정서 경험을 조절한다. 특히 충동이 생길 때 행동을 억제하게 하고, 전략적인 계획과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서표현을 조절하게 한다(Eisenberg et al., 2007; Rothbart & Bates, 2006). 보통 통제노력은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Posner & Rothbart, 2000). 주의조절 능력은 9개월 된 유아에게서 초보적 형태(불쾌한 자극에서 고개 돌리기 등)로 관찰되며, 기본적인 주의조절 능력은 통제노력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주의조절 능력은 영아기를 지나며 보다 자발적, 복합적, 융통적인 형태로 발달하며, 만 3세 전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을 포함한 전 주의체계(anterior attention network)와 관계 깊다(Posner & Rothbart, 2000; Rueda, Posner, & Rothbart, 2005). ACC는 뇌의 각 영역에서 보내는 정보간의 불일치를 탐지하는 실행적 중추이며, 동기·정서 체계인 변연계, 계획·통제 체계인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다(Rueda et al., 2005). 한편 억제통제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억제 능력으로서 주의체계의 발달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억제통제는 영아기 이후 비교적 늦게 발달하는 능력으로서 24-36개월 이전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Posner & Rothbart, 2000). 유아의 억제통제는 부모용 질문지(Moilanen, Show, Dishion, Gardner, & Wilson, 2010)와 만족지연과제(Li-Grining, 2007)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만2세에서 4세 사이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지시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실험과제에서 유아가 자신의 반응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확률은 만 3세 22%에서 만 4세에 90%로 크게 증가하였다(Jones, Rothbart, & Posner, 2003).

Liew, Eisenberg과 Reiser(2004)는 높은 통제노력과 낮은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을 보이는 유아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의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게 즉각적인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한다고 보

고했다. Carlson과 Wang(2007)은 유아의 통제노력의 한 부분인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는 연령과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서조절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Spinard 등(2007)은 유아와 아동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통제노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고 통제노력이 낮을 때, 내재화 장애 및 외현화 장애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uerbach, et al., 2008; Verstraeten, Vasey, Raes, & Bijttebier, 2009). 국내 연구에서 김정민(2013)은 유아의 억제통제(실행 기능 중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이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조절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통제노력이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용어에 있어서도 장혜인(2010)은 '통제노력'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문영경(2009), 배운진(2011), 김정민(2013), 이유진과 정은정(2013)은 '의도적 통제' 등을 사용해 아직 통일된 번역이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혜인(2001)의 연구와 동일하게 '통제노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아는 보통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내면화 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Davidov와 Grusec(2006)은 자녀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배려해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에 보다 긍정적이고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집안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영유아 자녀의 정

서조절, 유연한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Eisenberg, et al., 2005).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므로, 아동기의 부적절한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학습 및 사회적 적응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enham & Kochanoff, 2002; Fabes, Eisenberg, & Miller, 1990; Gottman, Katz, & Hooven, 1997). Bett, Gullone과 Allen(2009)는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과보호가 특징인 양육스타일과 청소년의 빈곤한 정서조절능력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에서 임희수와 박성연(2002)은 어머니의 냉정하고 강압적이며 유아를 무시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혜련과 최보가(2005)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지연과 곽금주(2010)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3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무관심이 5세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3세와 5세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이 5세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2014)은 3-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많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증가한 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많을수록 정서조절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최근 유아나 아동의 기질적 통제노력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나 아동의 정서조절(또는 문제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Caspi 등(2004)과 Denham 등(2000)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이 함께 작용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따뜻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기질적 통제노력이 잘 기능할 때 자녀의 정서조절과 행동적응도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Eisenberg 등(2001)과 Valiente 등(2006)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노력통제와 함께 상호작용해서 파괴적 행동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Chang, Olson, Sameroff과 Sexton(2011)은 부모의 따뜻한 반응성과 적절한 체벌이 3년의 시간이 흘러도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제노력이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결국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노력통제와 행동문제(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은)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유아나 아동의 통제노력, 정서조절과 행동문제 등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영경(2009)은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매개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유진과 정은정(2013)은 유아의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고,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어머니 보고(이지은, 2014)나 유아기에 대한 회상(안효민,

2013; 정윤경, 박보은, 2010)에 의존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기보고나 회상을 통해서만 측정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기억 오류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고,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찰 및 실험 연구 등이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 척도를 우리나라의 사회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차 수준에서 번역해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와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지연, 남은영, 2011; 오지현,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이중 언어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번역-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28문항의 단축형 CCNES를 구성했다. 또한 연구결과와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3-5세 유아와 어머니 68쌍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보고하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유아 행동실험과 유아 행동관찰을 실시해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등을 측정하고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둘째,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주 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하고자 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수도권 도시 소재의 어린이집 2곳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어머니 20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는 연구 안내서와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81쌍의 어머니와 유아가 연구에 동의하였고 설문지 작성과 관찰실험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어휘력 검사¹⁾를 실시해서 백분위 35%ile의 저조한 수행을 보인 유아 2명, 실험 중 어려움을 보이거나 신뢰롭지 못한 수행을 한 유아 9명, 연령이 만6세(72개월)이상인 유아 2명 등 총 13명의 유아를 제외하고 최종 68명의 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 참가자의 수는 남아 34명(50.0%), 여아 34명(50.0%)이었고, 연령별로는 3세 16명(23.5%), 4세 25명(36.8%), 5세 27명(39.7%)으로 3세 유아의 인원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적었다. 유아의 평균연령은 3세 45.5개월(연령범위: 36-47개월), 4세 54.0개월(연령범위: 48-59개월), 5세 67.7개월(연령범위: 60-71개월)이었다(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6.01세(SD: 4.05)이며, 학력은 대졸이 56명(82.4%), 고졸 7명(10.3%), 대학원 졸 5명(7.4%) 등이었다.

연구도구

1)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언어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2009)를 실시하였다.

표 1. 유아의 성별연령분포 (n=68)

연령(만)	성별	남	여	전체
3세		8	8	16
4세		14	11	25
5세		12	15	27
전체		34	34	68

유아의 통제노력 척도1: 유아행동질문지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유아의 통제노력의 평가를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Rothbart, Ahadi와 Hershey(1994)가 개발하고, 이경옥(2004)이 타당화한 유아행동질문지 195문항 중 통제노력에 해당하는 27문항,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활동 중에 주의 초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주의 집중하기 9문항,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억제통제 13문항,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전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Rothbart 등(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7, 본 연구에서 통제노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다.

유아의 통제노력 척도2: 만족지연과제

(Delay of Gratification Task)

Mischel과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지연 패러다임을 김혜순(2006)이 수정해 사용한 것과 김수혜(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Mischel과 동료들(1989)은 실험에 사용할 보상으로 유아에게 매력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두 개의 보상을 선택해야 한다

고 했으며, 마시말로우(marshmallow)와 프레첼(pretzel)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실험실 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3세아는 5분, 4세아는 7분, 5세아는 10분이 경과하거나 유아가 종을 치는 순간까지를 지연시간으로 하고 타이머를 측정하였다. 연령에 따라 지연시간을 구분한 것은 선행연구(김수혜, 2000; 김혜순, 2006; Rha, 1999)에 의거하여 정하였다. 지연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초로 환산한 수치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연령별로 지연시간의 종료를 다르게 적용했으므로 3세아는 지연시간을 5분, 4세아는 지연시간을 7분, 5세아는 지연시간을 10분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지연시간의 차이를 통제했다.

유아의 통제노력 척도3: 뽀로로가 말하기를

Carlson과 Wang(2007)이 유아의 통제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게임인 “Simon Says”를 사용했다.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주인공 “뽀로로가 말하기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자는 10가지의 간단한

동작을 말해주고(예. “눈을 감아요”, “박수를 쳐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칙을 설명한다. 규칙은 “뽀로로가 말하기를” 할 때만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뽀로로가 말하기를” 없이 지시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다. 10번의 수행 중 5번의 지시는 “뽀로로가 말하기를”, 5번의 지시는 “뽀로로가 말하기를”이 없이 한다(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없이, 뽀로로, 뽀로로 없이, 규칙다시 설명하고 뽀로로없이, 뽀로로, 뽀로로없이, 뽀로로없이, 뽀로로). 수행점수는 0-3점으로 채점하며 총 10번의 수행에 대해 채점하므로 총점범위는 0-30점이다. 0점은 완전히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것, 1점은 지시를 가끔씩 따르는 것, 2점은 지시를 잘 따르는 것, 3점은 지시를 완전히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척도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CCNES)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척도

표 2. 통제노력척도의 하위문항 구성

하위요인	정의와 문항	정의	문항
주의 집중하기 (Attention Focusing)	활동 중에 주의 초점을 유지하는 경향(예: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매우 집중하면서 한다)		3, 7*, 8*, 15, 17, 19, 22*, 26, 27*
억제통제 (Inhibitory Control)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압하는 능력(예: 지시에 잘 따른다)		1, 4, 6*, 9, 10, 11*, 13*, 14, 16, 18, 20*, 21, 25
주의 전환 (Attention Shifting)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예: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2*, 5, 12*, 23, 24*

* 역산문항

표 3. CCNES의 탐색적 요인분석

(n=232)

문항	요인	요인1 (문제 · 정서 초점)	요인2 (치별 · 취소화)	요인3 (표현격려/ 정서표현)	요인4 (고통감/ 스트레스)
26. 손님들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아이가 편안해지게 한다(상황9)		.72**			
18. 무서운 내용을 잊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것을 한다(상황6)		.71**			
20.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도록 한다(상황7)		.68**			
3. 아이에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 말함으로써 달래준다(상황3)		.67**			
16. 아이가 잠을 잘 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예: 인형 갖고 자기, 잘 때 불 켜두기)(상황6)		.66**			
4. 얼마 없이 친구 집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도록, 아이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예: 좋아하는 책이나 인형 가져가기)(상황3)		.66**			
1. 아이를 위로해 주고 파티에 못가서 나빠진 기분이 나아지도록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상황1)		.63**			
11. 아이가 덜 긴장 하도록,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상황5)		.62**			
25. 손님을 덜 무서워 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예: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만나기)(상황9)		.61**			
24. 아이를 위로해준 후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 게임을 한다(상황8)		.60**			
8. 아이를 위로해주고 기분이 나아지게끔 한다(상황4)		.60**			
23. 다른 아이가 자신에게 안 좋게 대할 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예: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보기)을 생각해 보게 한다(상황8)		.46**			
22. 아이에게 잘 행동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상황8)			.74**		
12. 아기에게 아기처럼 굴지 말라고 말한다(상황5)			.73**		
13. 아이가 침착해지지 않으면, 즉시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상황5)			.72**		
5. 아이에게 벌일 아닌데, 아기처럼 굴지말라고 말한다(상황3)			.72**		
21. 아이에게 그 일에 대해 범석떨지 말라고 말한다(상황8)			.68**		
17. 자러가지 않으면 더 이상 TV를 못보게 하겠다고 말한다(상황6)			.62**		
28. 아이에게 아기같이 굴지 말라고 한다(상황9)			.61**		
19. 아이에게 만약 운다면 곧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상황7)			.51**		
14. 아이가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상황5)				.82**	
7. 아이가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한다(상황3)				.78**	
10. 아이가 느낀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야기 하도록 격려한다(상황4)				.77**	
2.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게 격려한다(상황2)				.73**	
15. 무엇이 그토록 무서웠는지 아이가 말하도록 격려한다(상황6)				.51**	
9. 나 스스로 불편하고 당혹스럽다(상황4)					.77**
27.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상황9)					.74**
6. 아이의 반응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상황3)					.69**

** p<.01

주. 상황1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친구에 생일파티에 못 가 화가 났다면, 나는..

상황2. 만약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해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매우 떨면서 운다면, 나는..

상황3. 만약 아이가 친구 집에서 오후에 놀려고 할 때, 엄마가 같이 할 수 없어서 아이가 불안해 하고 속상해 한다면, 나는..

상황4. 만약 아이가 친구들과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계속 실수하고 당황해서 우는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상황5. 만약 아이가 발표하나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한다면, 나는..

상황6. 만약 아이가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나는...

상황7. 만약 아이가 놀이터나 공원에서 다른 아이가 놀리고 함께 놀아주지 않아 울려고 한다면, 나는...

상황8. 만약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그 중 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욕을 하고 내 아이가 떨면서 운다면, 나는...

상황9. 만약 아이가 낯선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서, 손님이 오면 항상 울고 자기 방에만 있으려한다면, 나는...

(CCNES; 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를 번역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0인을 대상으로 72문항의 CCNES에 대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자는 발달심리전문가(1인), 임상심리전문가(4인), 부모교육전문가(1인)에게 의뢰하여 CCNES를 1차 수정하였다. 이후 만 3-5세 유아를 둔 다른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CCNES에 대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해하기 어렵거나 신뢰도가 낮았다고 보고된 문항들을 수정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이 실시한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최종문항을 수정 및 확정하였다. 1,2차 예비조사에서 CCNES의 72문항을 실시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 먼저 서울, 수도권 광역시와 지방도시의 3-5세 자녀를 둔 232명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했다. 또한 전체 72개 문항들 중 항목-전체 항목간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30미만이거나 3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상관되거나 특정 요인에 묶이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했다. 그 결과 전체 12상황 72개 문항으로부터 최종 9개 상황 28 문항이 추출되었다. 28문항은 문제·정서 초점 반응 12문항, 처벌·최소화 반응 8문항, 표현격려(정서 표현) 반응 5문항, 고통감(스트레스) 반응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3). 원래의 CCNES의 하위요인인 정서초점 반응과 문제초점 반응은 문제·정서초점 반응으로, 최소화반응과 처벌 반응은 처벌·최소화 반응으로 함께 묶였고,

표현격려 반응과 고통감 반응은 원래의 하위요인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제·정서초점적 반응과 표현격려 반응은 지지적 척도, 처벌·최소화반응과 고통감은 비지지적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와 지방도시의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2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그 결과 CCNES의 모형구조의 적합도가 지지되었다($\chi^2=8.23$, $p=.041$; CFI=.974, NNFI=.947, RMSEA=.088(.016-.163))(그림 1). 또한 본 CCNES는 정서조절척도 및 양육효능감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지지되었다. 이 예비연구를 통해 CCNES 단축형 28문항이 최종적으로 정해졌고, 문제·정서 초점 반응 12문항, 처벌·최소화 반응 8문항, 표현격려 반응 5문항, 고통감 반응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CCNES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며, 4개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반응 평균값을 사용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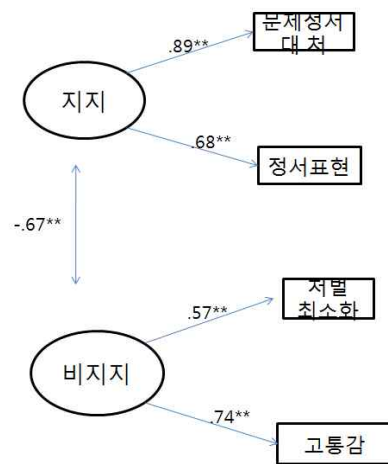


그림 1. CCNES의 구조모형

채점했다. 4개 하위척도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의 성향이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abes, Eisenberg와 Bernzweig (1990)의 연구에서 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 비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이었다. 본 연구의 단축형 CCNES 28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이며, 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 비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척도2: 유아와 어머니의 협동놀이 관찰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협동구성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과정은 사전 위밍업 절차인 동화책 읽기와 나무블록 놀이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유아 행동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협동구성과제(Co-Construction Task)(Steele, D'Agostino, & Blom, 2005)는 어머니-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디오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나무 블록 대신 유아용 지

능검사의 토막 짜기 블록 9개를 가지고 4개의 그림판을 맞추도록 하여 5분간 관찰하였다. 그림판 3개는 각각 1분의 제한 시간을 주고, 그림판 1개는 2분간의 시간제한을 주고 맞추도록 하여 5분간 유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유아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어머니와 함께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반응에 어머니가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반응을 10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반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 협동구성 과제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가는 2명의 평정자(발달심리전공 석사 1명과 본 연구자)가 실시했다. 1차에서는 2명의 평정자가 기본적인 평정자 간 신뢰도 분석을 했고, 차이점과 논의점을 충분히 합의한 후 2차 평정자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평정자 간 신뢰도 검증 결과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 평정에 대해 산출된 상관계수(r)의 범위는 .81-.89였다.

표 4. 협동구성과제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평가

범주	내용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Parent Nonverbal Ratings)	어머니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기술의 효과성을 평정하며, 얼굴표정, 목소리톤, 제스처, 공간의 배치, 신체적 접촉 방식, 기타 비언어적 특징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Parent Verbal Ratings)	어머니가 유아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기술을 평정한다. 어머니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평정 (Parent Global Ratings)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반응을 전반적으로 평정한다.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드러내는지에 중점을 둔다.

표 5. 유아의 정서조절척도 하위요인

하위요인	문항
긍정적 정서표현	1, 2, 3, 4, 6, 9, 11, 15, 17
부정적 정서표현	5, 7, 8, 10, 12, 13, 14, 16, 18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1: 정서조절척도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민(2013)이 번역한 Shields와 Cicchetti(1997)의 정서조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정서조절척도는 유아의 정서적 유연성과 적응성, 강도 분노조절,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유아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6문항을 제외한 18문항(Likert식 4점척도; 1=거의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이 정서조절은 유아의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평가되며 전체 점수의 범위는 18-72점으로 긍정적 정서표현 점수와 부정적 정서표현을 역산한 값을 합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Shields와 Cicchetti(1997)이 보고한 정서조절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표 5).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2: 실망스러운 선물 (Disappointing Present)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유아가 보이는 정서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고안된 Saarni(1984)의 실험과 Carlson과 Wang(2007)의 실험 절차를 수정하고 김정민(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

여 실시하였다. ‘뽀로로가 말하기’ 게임에 이어 게임의 수행 결과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유아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후 자신의 실망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험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Saarni(1984)가 사용한 정서에 대한 얼굴표현 부호화 체계(coding system)를 보완하여 사용한 Carlson과 Wang(2007)의 부호와 체계를 수정해 사용했다.

Tsai, Louie, Chen와 Uchida(2007)는 아동의 감정사회화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하였다. 유아의 긍정적 정서에 적합한 표정에 있어, 유럽계 미국 유아는 대만 등의 동양의 유아 보다 행복을 나타내는 표정이 더 극적(excite)임을 밝히고 동서양 유아간의 정서표현의 차이를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서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부호화 체계를 동양문화권인 우리 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이 관찰을 통해 제시되어 기존의 부호화 체계에서 이행적 차원으로 분류된 ‘약간 웃음-다문 입을 약간 벌리기’, ‘고맙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는 긍정적 차원으로, ‘웃음이 갑작스럽게 없어짐’은 부정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유아가 실험자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 표현은 적게 한 경우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서조절 점수는 유아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실험자 앞에서 보인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실험자가 나간 후 얼마나 변화했는지, 유아가 실험자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실망스러운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변화량을 뜻한다. 실험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긍정적 정

서 표현 점수의 차이와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의 차이를 합산해 산출한 정서조절 총점수의 범위는 -5~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 한 것으로 본다. 정서표현 반응에 대한 평가는 2명의 평정자(발달심리전공 석사1명과 본 연구자가)가 실시했다. 1차에서는 2명의 평정자가 기본적인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했고, 차이점과 논의점을 충분히 합의한 후 2차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 결과 산출된 상관계수(r)의 범위는 긍정적 차원, 이행적 차원, 부정적 차원에 대해 .76-.92였다.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3: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인형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검사인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를 실시한 후, 박진아(2007)가 번안한 Fonagy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Bretherton 등(1990)이 개발하고 이해란, 신의진, 이경숙(1999)이 번안한 MSSB는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 뒤, 제시된 상황 이후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요구하는 반구조화된 인형역할놀이 이야기 꾸미기 과제로서 도입부와 종결이야기 1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박진아, 2007). 본 연구에서는 warm-up 에피소드인 생일잔치, 엄마의 두통(mom's headache: 어머니와의 갈등상황), 잃어버린 열쇠(lost key: 부모 간 갈등상황)의 총 3개의 에피소드를 제시하였다. 생일잔치를 제외한 두 개의 에피소드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Sher-Censor & Oppenheim,

2004)이며 이는 본 연구의 유아들의 정서조절을 관찰하며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이므로 선정하였다. 박진아와 정문자(2007)가 번안한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Fonagy & Target, 2000)는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유아가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관찰하는 측정척도로서 과잉억제(down-regulation), 과장표현(exaggeration), 정서조절실패(failure of regulation)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분석은 본 도구의 원저자인 MacArthur Narrative Group 중 한명인 Dr. Robinson에게 훈련 받은 아동학자 1인과 임상심리학자 1인으로부터 30시간 이상 이 도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아동상담전공 석사 2명이 수행했다.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된 상관계수(r)는 .87이었다.

자료분석

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와 AMOS 5.0을 사용했다. CCNES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지, 협동놀이, 관찰실험 등의 연구에 대한 코딩을 위해 코딩훈련을 실시했으며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변인간의 단순상관분석,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했다.

결 과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유아의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유아의 정서조절(어머니가 보고한 ERC 설문지,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관찰, 실망스런 선물 실험)을 측정했다(표 6).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CBQ)의 3개의 하위요인 주의집중하기($r=.32, p<.01$), 억제통제($r=.61, p<.01$), 주의전환($r=.61, p<.01$) 모두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의 억제통제가 관찰을 통해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과잉억제($r=-.25, p<.05$), 주의전환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r=-$

$.30,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런 선물 실험과는 상관이 없었다. 실험으로 측정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만족지연 시간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과 관찰로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와 상관이 없었으나,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런 선물($r=.2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실험으로 유아의 통제노력을 측정한 뽀로로가 말하기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표 6.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관계 (n=68)

	1	2	3	4	5	6	7	8	9	10
1	1									
2	.51**	1								
3	.31**	.54**	1							
4	.28*	.28**	.27*	1						
5	.09	.19	.18	.28*	1					
6	.32**	.61**	.61**	.11	-.01	1				
7	-.11	-.25*	-.00	-.00	-.08	-.15	1			
8	-.04	-.01	-.13	.09	.17	-.15	-.35**	1		
9	-.03	-.23	-.30*	-.10	.00	-.33**	.17	.40**	1	
10	-.04	.03	.20	.24*	.10	.10	-.21	.08	-.02	1
M	4.77	5.05	4.58	61.39	21.35	3.05	3.87	1.50	2.30	4.26
(SD)	(.83)	(.85)	(.87)	(43.84)	(6.64)	(.34)	(2.04)	(.94)	(1.47)	(3.38)

* $p<.05$ ** $p<.01$

주. 1. CBQ1(주의집중) 2. CBBQ2(억제통제) 3. CBQ3(주의전환) 4. 만족지연실험 5. 뽀로로 실험 6. 정서조절설문(ERC) 7. MSSB1(과잉억제) 8. MSSB2(과장표현) 9. MSSB3(정서조절실패) 10. 실망선물

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 관찰)과 유아의 정서조절(어머니가 보고한 ERC 설문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 관찰, 실망스런 선물 실험)을 측정했다(표 7).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CCNES) 중 문제·정서초점반응($r=.46, p<.01$), 표현격려 반응($r=.40, p<.01$), 지지반응($r=.51, p<.01$)은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고통감($r=-.25, p<.05$)과 비지지반응($r=-.26, p<.05$)은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한 어머니-유아 협동놀이는 비언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전반적 반응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할 맥아더 이야기의 정서조절 실패($r=-.24,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 7.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상관 (n=6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53**	1												
3	-.29*	-.22	1											
4	-.08	-.15	.43**	1										
5	.93**	.79**	-.30*	-.12	1									
6	-.24*	-.23	.92**	.75**	-.27**	1								
7	.04	.07	-.13	-.01	.05	-.10	1							
8	-.15	-.15	-.24*	-.27*	-.16	-.29*	-.00	1						
9	.08	.04	-.19	-.21	.07	-.24*	.45**	.40**	1					
10	.46**	.40**	-.21	-.25*	.51**	-.26*	-.15	-.05	.02	1				
11	.10	-.04	.14	.14	.05	.17	-.10	-.19	-.07	-.15	1			
12	.08	.05	-.13	.01	.07	-.08	.13	.05	.08	-.15	-.35**	1		
13	.05	.00	.10	.10	.03	.12	.05	-.24*	-.09	-.33**	.17	.40**	1	
14	.08	.13	.04	.01	.11	.03	-.08	.04	-.00	.10	-.21	.08	-.02	1
M	4.01	3.67	1.86	2.66	2.92	2.07	10.63	19.64	25.25	3.05	3.87	1.50	2.30	4.26
(SD)	(.50)	(.69)	(.69)	(1.09)	(.49)	(.68)	(5.43)	(7.37)	(8.68)	(.34)	(2.04)	(.94)	(1.47)	(3.38)

* $p<.05$ ** $p<.01$

주. 1. CCNES1(문제·정서초점) 2. CCNES2(표현격려) 3. CCNES3(처벌·최소화) 4. CCNES4(고통감) 5. CCNES5(지지) 6. CCNES6(비지지) 7. 협동놀이(비언어) 8. 협동놀이(언어) 9. 협동놀이(전반적) 10. 정서조절 설문(ERC) 11. MSSB1(과잉억제) 12. MSSB2(과장표현) 13. MSSB3(정서조절실패) 14. 실망선물

로 언어적 반응을 하는 것과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중 비언어적 반응과 전반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모보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 설문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52%를 설명했고($F=11.06, p<.01$),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6.5%를 추가로 설명했다($F=5.87, p<.01$). 특히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beta=.38, p<.01$), 주의전환($\beta=.36, p<.01$)과 CCNES 중 문제·정서초점 반응($\beta=.23, p<.05$)이 정서조절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억제통제와 주의전환, 문제·정서초점 반응을 많이 할수록 정서조절을 잘하였다(표 8).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잉억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10.4%를 설명했고($F=2.21,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3.7%를 추가로 설명했다($F=2.33, p<.05$). 특히 어머니가 보고한 억제통제($\beta=-.45, p<.01$)가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억제통제가 잘 될수록 과잉억제를 덜 하였다(표 9).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장표현: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8.4%를 설명했고($F=2.93,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0.5%를 추가로 설명했다($F=2.96, p<.05$). 특히 어머니가 보고한 주의전환($\beta=-.43, p<.05$)과 뽀로로

표 8.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정서조절(ERC)에 미치는 영향 (n=68)

회귀값 통제노력/양육행동	B	β	t	R ²	ΔR^2	F
(상수)	3.01		18.33**	.001	.001	.055
수용언어	.00	.03	.23			
1단계 (상수)	1.56		6.37**			
수용언어	.00	.06	.59			
주의집중하기	.00	.01	.13			
억제통제	.16	.41	3.36**	.521	.520	11.06**
주의전환	.17	.44	4.02**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0	-1.05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0	-.18	-1.70			
2단계 (상수)	1.43		3.61**			
수용언어	.00	.03	.29			
주의집중하기	-.02	-.05	-.49			
억제통제	.15	.38	3.02**	.586	.065	5.87**
주의전환	.14	.36	2.92**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5	-1.53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0	-.15	-1.33			
문제·정서초점	.16	.23	2.07*			
표현격려	.01	.03	.29			
차별·최소화	.00	.00	.04			
고통감	-.02	-.07	-.74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0	-.10	-.99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0	-.09	-.85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2	.19			

**p<.01

가 말하기 실험($\beta=.37, p<.05$)이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주의전환이 증가할수록 과장표현을 덜 했고,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증가할수록 과장표현이 증가했다(표 10).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실망스러운 선물)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표 9.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정서조절(과잉억제)에 미치는 영향 (n=68)

통제노력/양육행동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상수)		4.28		4.36**			
수용언어		-.00	-.05	-.42	.003	.003	.18
1단계 (상수)		6.43		3.22**			
수용언어		.00	.06	.38			
주의집중하기		-.00	-.00	-.02			
억제통제		-.90	-.37	-2.27*	.107	.104	2.21*
주의전환		.44	.19	1.25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1	.85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3	-.11	-.78			
2단계 (상수)		3.85		1.20			
수용언어		.00	.06	.39			
주의집중하기		.01	.00	.04			
억제통제		-1.09	-.45	-2.68**			
주의전환		.63	.27	1.64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2	.15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6	-.22	-1.41	.244	.137	2.33*
문제 · 정서초점		1.00	.24	1.60			
표현격려		-.24	-.08	-.54			
차별 · 최소화		.71	.24	1.58			
고통감		.03	.01	.13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3	-.09	-.67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6	-.23	-1.54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2	.09	.62			

* p<.05 ** p<.01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 10.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정서조절(과장표현)에 미치는 영향 (n=68)

통제노력/양육행동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상수)		1.45		3.20**			
수용언어		.00	.01	.10	.00	.00	1.11
1단계 (상수)		2.08		2.22*			
수용언어		-.01	-.17	-1.13			
주의집중하기		-.07	-.06	-.44			
억제통제		.13	.12	.73	.084	.084	2.93*
주의전환		-.26	-.25	-1.63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5	.39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4	.27	1.89			
2단계 (상수)		1.86		1.21			
수용언어		-.01	-.21	-1.38			
주의집중하기		-1.96	-.17	-1.11			
억제통제		.21	.19	1.09			
주의전환		-.46	-.43	-2.47*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8	.61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5	.37	2.28*	.189	.105	2.96*
문제·정서초점		.17	.09	.57			
표현격려		.14	.10	.68			
처벌·최소화		-.33	-.24	-1.55			
고통감		.02	.02	.17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0	.03	.20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1	.12	.77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4	.24			

* p<.05 ** p<.01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10.7%를 설명했고($F=2.36,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6%를

추가로 설명했다($F=2.25, p<.05$). 특히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시간($\beta=.35, p<.05$)이 실망스런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만족지연시간

표 11.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정서조절(실망선물)에 미치는 영향 (n=68)

통제노력/양육행동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상수)		.62		.40			
수용언어		.06	.28	2.41*	.081	.081	5.82**
1단계 (상수)		1.02		.30			
수용언어		.08	.32	2.19*			
주의집중하기		-.45	-.11	-.79			
억제통제		-.79	-.19	-1.25	.188	.107	2.36*
주의전환		.00	.18	1.26			
만족지연시간 실험		1.30	.33	2.37*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7	-.14	-1.06			
2단계 (상수)		-1.25		-.22			
수용언어		.08	.34	2.11*			
주의집중하기		-.37	-.09	-.58			
억제통제		-.91	-.23	-1.32			
주의전환		.00	.15	.97			
만족지연시간 실험		1.37	.35	2.10*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8	-.15	-.98	.204	.016	2.25*
문제 · 정서초점		-.07	-.01	-.07			
표현격려		.41	.08	.54			
차별 · 최소화		.50	.10	.66			
고통감		.06	.02	.14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2	-.03	-.26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1	.03	.21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1	-.07			

*p<.05

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이 잘 되었다(표 1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사용자 1인의 번역-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단축형 CCNES(28문항)를 구성했다. 또한 3-5세 유아와 어머니 68쌍을 대상으로 유아의 통제 노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어머니의 보고(CBQ, ERC)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관찰(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어머니-유아 상호협동놀이), 실험(만족지연, 뽀로로가 말하기, 실망스런 선물)을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가 자녀의 통제노력 중 주의집중, 억제통제, 주의전환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도 높았다. 또한 억제통제가 높다고 보고할수록 관찰에서 낮은 수준의 과잉억제를, 주의전환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관찰에서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 실패를 보였다. 둘째,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과 억제통제,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질문지(CCNES)의 문제·정서초점이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가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때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부적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이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때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와 과장표현을 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시간이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 결과 통제노력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과 억제통제는 정서조절과 가장 관계 깊은 자기조절 능력으로서, 유아의 정서조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통제노력의 하위요인인 주의전환이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유아의 정서조절에 정적 영향을 미쳐($\beta=.36, p<.01$), 주의전환이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주의조절은 억제통제와 함께 노력적 통제의 한 부분으로서, 3세 전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ACC는 반응성 기질과 관련된 동기/정서 체계인 변연계와 계획/통제 체계인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져 효과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게 한다(Jones, Rothbart, & Posner, 2003; Kochanska, Coy, & Murray, 2001; Rueda et al.,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통제노력의 하위요인인 억제통제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것은($\beta=.38, p<.01$) Carlson과 Wang(2007), 김정민(201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단순상관분석에서 억제통제($r=.61, p<.01$)와 주의전환($r=.61, p<.01$)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주의집중하기($r=.32, p<.01$)는 정서조절과 상대적으로 적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의집중하기는 억제통제와 주의전환에 비해 정서조절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도 주의집중하기가 정서조절을 설명하지 못했다. 주의집중하기는 주의전환과 마찬가지로 통제노력의 주의조절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전환만큼 정서조절과 높은 관계도 없었고, 회귀분석에서도 정서조절을 설명해 주지 못해 주의집중하기가 억제통제만큼 중요하다는 선행연구(Bar-Haim, Bar-Av, & Sadeh, 2011; Davis, Bruce, & Gunnar, 2002)와 불일치 했다. 국내에

서 억제통제와 관련된 문영경(2009)의 연구에서는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인을 밝히지 않고 총점으로 합산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향후 주의집중하기가 정서조절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외국과 국내 유아 간의 문화적, 기질적 차이를 살펴보고,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질문지와 실험절차를 보다 정교화하는 등 후속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해 통제노력을 측정한 뽀로로가 말하기(Simon Says)가 질문지와 실험 및 행동 관찰 상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본 과제의 수행결과가 정서조절(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중 과장표현)을 정적으로 예측했다($\beta=.37, p<.05$). 이 결과는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에서 4-6세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뽀로로가 말하기(Simon Says)가 포함되어 산출된 억제통제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불일치한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Carlson과 Wang처럼 3개 정도의 여러 실험 점수들을 합산한 억제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 1개만을 억제통제 점수로 사용한 점,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매우 저조한 3세의 유아들을 포함시킨 점이 작용한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는 외국의 유아와 다르게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통제노력이 아니라 주의집중이나 지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 시간이 실험을 통해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과 정적 상관($r=.24, p<.05$)이 있었고, 회귀분석에서도 실망스러운 선물을 정적으로 예측했다($\beta=.35, p<.05$). 이 결과는 Mischel 등(1989)의 만족지연 패러다임(The Delay of Gratification

Paradigm)이나 김혜순(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만족지연 시간의 증진이 정서조절을 잘 예측하므로 정서반응에 대한 적절한 억제(inhibition)가 만족지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정서조절과 자기조절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문제·정서초점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CCNES에서 자녀의 기분이 회복되어 다시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 EFR)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에 자녀가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 PFR)을 모두 포괄하는 요인이다. 또한 협동놀이를 통해 측정된 어머니의 언어적 양육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있음도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Fabes 등(2001), Morris 등(2007), Tsai 등(2010), Chang 등(2011), 박진아(2007), 이지은(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부모의 지지적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보고(CCNES)에 기초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표현격려 반응, 처벌·최소화, 고통감은 상관분석에서는 정서조절(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한)과 약간의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와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가 보고한(설문지)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보고나 실험(뽀로로 말하기)으로 측정한 통제노력이 실험

(MSSB)으로 측정된 정서조절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반면, 어머니의 보고나 관찰(협동놀이)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실험(MSSB)으로 측정된 정서조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실험(만족지연과제)으로 측정된 유아의 통제노력이 실험(실망스러운 선물)으로 측정된 정서조절에 정적 영향을 준 반면, 어머니의 보고나 관찰(협동놀이)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두 실험(실망스러운 선물)으로 측정된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국 기질적 통제노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이 모두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설문지로 측정될 때에만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질적 통제노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이 모두 유아 행동실험이나 행동관찰을 통해 측정될 때는 기질적 통제노력만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나 아동의 기질적 통제노력이 유아나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문영경, 2009; 이유진, 정은정, 2013; Chang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 행동실험이나 행동관찰을 통해 측정된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닌 유아의 기질적 통제노력만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설문지 연구의 용이성은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 등에서도 종종 보고되었다. 아마도 상관이나 회귀연구에 있어 측정단위가 비교적 잘 정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지 연구가 행동실험이나 행동관찰 등을 통한 연구보다 보다 더 유의한 결과를 가

져오기 쉬운 것 같다. 향후 연구도구의 선택과 측정의 문제, 다양한 측정도구의 사용에 대해 후속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기존 연구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 68쌍에 대한 관찰 및 실험연구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보고만 사용하는 것은 편향적, 주관적 반응 등으로 타당도의 저하를 가져올 오기 쉬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과 타당도의 증진을 기하고자 했다. 둘째, 정서관련 양육행동 측정과 연구를 위해 많이 쓰이는 설문지(CCNES)의 번역과 역번역을 하고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고려해서 단축판 CCNES(28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국내의 정상적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정서양육행동에 대해 불안장애나 임상군에 속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진아, 2007; 박진아, 정문자, 2007)나 정상군에 속하는 영유아에 대한 연구도(안효민, 2013; 이지은, 2014)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정상군에 속하는 영유아에 대한 연구는 정상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연구결과를 부모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용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주 연구대상이 3-5세 영유아 68명이라 이 연구결과를 국내의 3-5세 영유아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숫자라 할 수 있다. 향후 충분한 수의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통제노력과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거나 설명한다는 것은 입증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으로서 역할하는지는 연구하지 못했다. 향후 관련된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보고한 설문지와 설문지, 행동실험과 행동실험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이나 회귀 결과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보고한 설문지와 실험, 설문지와 관찰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나 회귀 결과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어느정도 나타나는 결과이다(Carlson & Wang, 2007). 향후 설문지에 대해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법의 개발(질문지법 이외에도 소정의 훈련을 받은 면접자가 면접하는 등), 관찰이나 실험과 관계된 측정 오차의 감소나 연구 설계와 절차의 정교화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통제노력과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정서조절에 미치는 주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통제노력과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최근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부모양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은 편이다. 향후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증진을 위해 영유아의 정서조절과 지도, 효과적인 부모양육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혜 (2000). 3세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동의 성(性),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2009). 수용·표현 어휘력검사의 개발연구: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4, 34-45.
- 김은희 (2014).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6.
- 김혜순 (2006).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및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경 (2009).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정문자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73-295.

- 배운진 (2011).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효민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정서조절능력이 학령기 남녀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 (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 경, 민경환 (2003).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이해의 발달: 정서원인과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 *심리과학*, 12(1), 13-29.
- 이경옥 (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유진, 정은정 (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1-249.
- 이지연, 광금주 (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 이지은 (2014). 어머니의 정서 신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신의진, 이경숙 (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표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0(1), 21-33.
-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 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이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03-112.
- 임희수, 박성연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혜인 (2010).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능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9-35.
- 정윤경 (2008). 아동 초기 정서 조절의 발달적 관련 변인: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발달적 관련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225.
- Auerbach, J., Berger, A., Atzaba-Poria, N., Arbelâe, S., Cypin, N., Friedman, A. (2008). Temperament at 7, 12, and 25 months in children at familial risk for ADH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21-338.
- Bar-Haim, Y., Bar-Av, G., Sadeh, A. (2011). Measuring children's regulation of emotion-expressive behavior. *Emotion*, 11, 215-223.
- Betts, J., Gullone, E., & Allen, J. S. (2009). An examination of emotion regula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as potential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risk status: a correlational stud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73-485.
- Brazelton, T. B., Koslowski, B., & Main, M. (1974). The origins of reciprocity: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in its caregiver*(pp. 49-76). New York: Johnwiley & son.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The MacArthur Narrative Story Stem Battery*. Unpublished manuscript.
- Carlson, S. M., & Wang, T. S.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89-510.
- Caspi, A., Moffitt, T.E., Morgan, J., Rutter, M., Taylor, A., Arseneault, L. (2004). Maternal expressed emotion predicts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Using MZ-twin differences to identify environmental effects on behavior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0*, 149-161.
-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Davis, E. P., Bruce, J. & Gunnar, M. R. (2002). The anterior attention network: Associations with temperament and neuroendocrine activity in 6-year-ol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0*(1), 43-56.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3), 311-343.
- Denham, S. A., Workman, E., Cole, P.M., Weissbrod, C., Kendziora, K. T.,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3-45.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 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93-211.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Scale: Procedure and Scoring.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Eisenberg, N., Miller, P. A. (1990). Maternal correlates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9-648.
- Fabes, R. A., & Eisenberg, N., Nymam, M., & Michealieu, Q. (1991). Young children's appraisal of other's spontaneous emotional re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58-866.
- Fabes, R. A., Hanish, L., Martin, C. L., & Eisenberg, N. (2002).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social isolation: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Merrill-Palmer Quarterly*, *48*, 284-307.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Fonagy, P. A., & Target, M. (2000). *Revised Manual for MacArthur Narrative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 Gottman, J. M., & Kats,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hwah, NJ: Erlbaum.
- Jones, L. B., Rothbart, M. K., & Posner, M. I. (2003).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6*, 498-504.
- Kochanska, G., Murr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091-1111.
- Lewis, M. (1993).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 563-573). New York: Guilford Press.
- Liew, J., Eisenberg, N., & Reiser, M. (2004).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negative emotionality, immediate reactions to disappointment,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9*, 298-319.
- Li-Grining, C. P. (2007). Effortful control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in three citie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08-221.
- Mangelsdorf, S. C., Shapiro, J. R., & Marzolf, D. (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of in emotion regulations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McCoy, C. L., & Masters, J. C. (1990). Children's strategies for the control of emotion in themselves and others. In B. S. Moore & A. M. Isen (Eds.), *Affect and social behavior* (pp.231-26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

-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Moilanen, K. L., Shaw, D. S., Dishion, T. J., Gardner, F., Wilson, M. (2010). Predictors of longitudinal growth in inhibitory control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9, 326-347.
- Morris, W. N. & Reilly, N. P. (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ch. *Motivation and Emotion*, 11, 215-249.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Posner, M. I., & Rothbart, M. K. (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12, 427-441.
- Rha, J. H. (1999). *Infants' emotionality and parenting as antecedents of delay of gratification in toddlerhood*. Doctori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othbart, M. K. & Hwang, J. (2005).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In A.J. Elliot & A.C.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pp. 167-184.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Dam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pp. 99-166). New York: Wiley
- Rueda, M. R., Posner, M. L., & Rothbart, M. K. (2005).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Contributions to the emergence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8, 573-594.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 study of children's attempts of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her-Censor, E. & Oppenheim, D. (2004). Coherence and representations in preschooler's narrative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 infancy. In M. W. Pratt & B. H. Feese(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s* (pp. 77-107). Maha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orce, J. F., Emde, R. N., Campos, J., & Klinnert, M.D. (1985). Maternal emotional signaling: Its effect on the visual cliff behavior of 1-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5-200.
- Spinar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Greving, K., Liew, J., Hofer, C. (2007). Relation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70-1186.
- Steele, M., D'Agostino, D., & Blom, I. (2005). The co-construction coding manual: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Unpublished

- manuscript.
- Tsai, J. L., Louie, J. Y., Chen, E. E., & Uchida, Y. (2007). Learning what feelings to desire: Socialization of ideal affect through children's storybook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 17-30.
- Valiente, C., Eisenberg, N., Spinrad, T. L., Cumberland, A., Losoya, S.H., Reiser, M. (2006). Relations among mothers' expressivity,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their problem behaviors: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motion*, 6, 459-472.
- Verstraeten, K., Vasey, M., Raes, F., & Bijttebier, P. (2009). Temperament and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ion by rumination and moderation by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37(3), 349-361.
- Westen, D. (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62, 641-667.
- Wolchik, S. A., & Sandler, I. N. (1997). *Handbook of children's coping with common life stressors*. New York: Plenum.

1차원고접수 : 2015.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9. 06
최종게재결정 : 2015. 09. 07

The Influence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other's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Hye Won Lee

Hye Kyung Park

Ok Kyung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in which mothers provide self-reports of their emotion-related child-rearing attitude, was translated into a brief Korean version that was composed of 28 items. Furthe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and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were measured by mothers' self-reports, a behavior experiment, and behavior observation of 68 pairs of 3 -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ention focusing, inhibitory control and attention shif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 regulation(ERC). Inhibitory control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own-regulation of emotion regulation(MSSB) and attention shif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ilure of MSSB. The emotion-focused reaction and expressive encouragement dimensions of the CCN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RC, and the distress dimension of CCNES was negatively with ERC. Second, attention shift and inhibitory control of effortful control and the problem·emotion-focused reactions dimension of the CCNES positively predicted ERC. Inhibitory control of effortful control negatively predicted down-regulation of MSSB, and attention shift of effortful control negatively did exaggeration of MSSB. Further, inhibitory control of effortful control ("Simon Says" task) negatively predicted exaggeration of MSSB, and inhibitory control of effortful control (delay of gratification task) positively predicted performance of Disappointing Present.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effortful control,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emotion regulation*